

B1F

옥상

2F-3F

1F

오프사이트

2023. 8. 18. - 10. 8.

아트선재센터 내외부 공간

크레이티브 지인, 오중, 이요나, 최고은, 현남, 현정운

ARTS CENTER

A

SJ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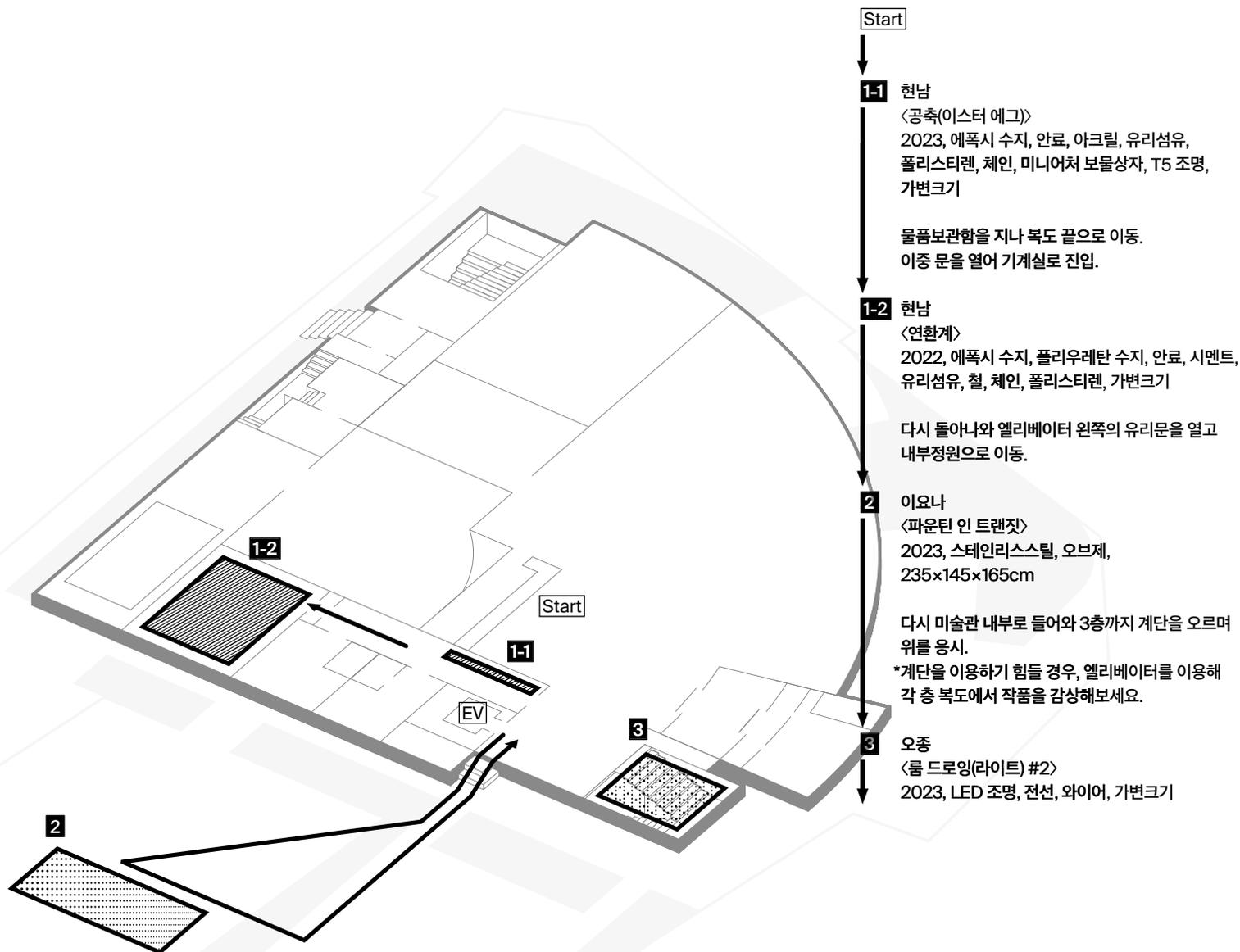
ff-site

B1F  
옥상  
2F-3F  
1F

# 오프사이트

2023. 8. 18. - 10. 8.

## 아트선재센터 내외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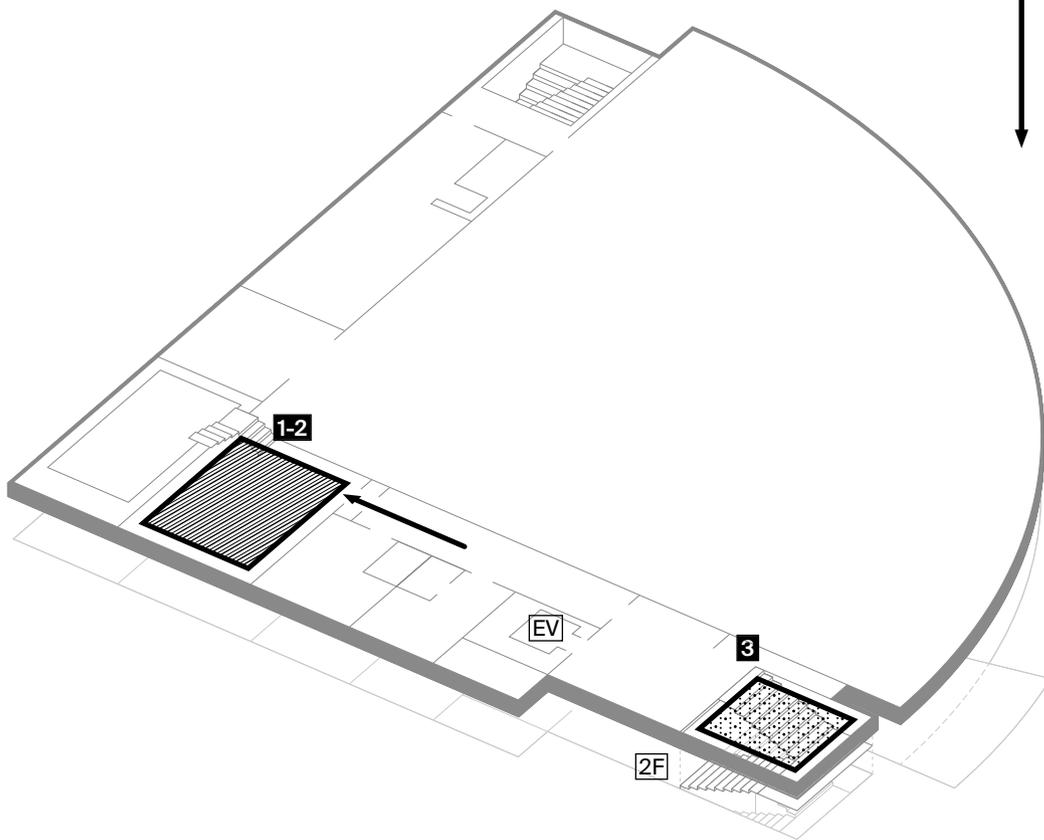
B1F

옥상

2F-3F

# 오프사이트

2023. 8. 18. - 10. 8.



**3**

오중

<룸 드로잉(라이트) #2>

2023, LED 조명, 전선, 와이어, 가변크기

3층 복도를 따라 기계실로 진입.

**1-2**

현남

<연환계>

2022, 에폭시 수지, 폴리우레탄 수지, 안료, 시멘트,  
유리섬유, 철, 체인, 폴리스티렌, 가변크기

3층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정원 방문.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B1F

옥상

# 오프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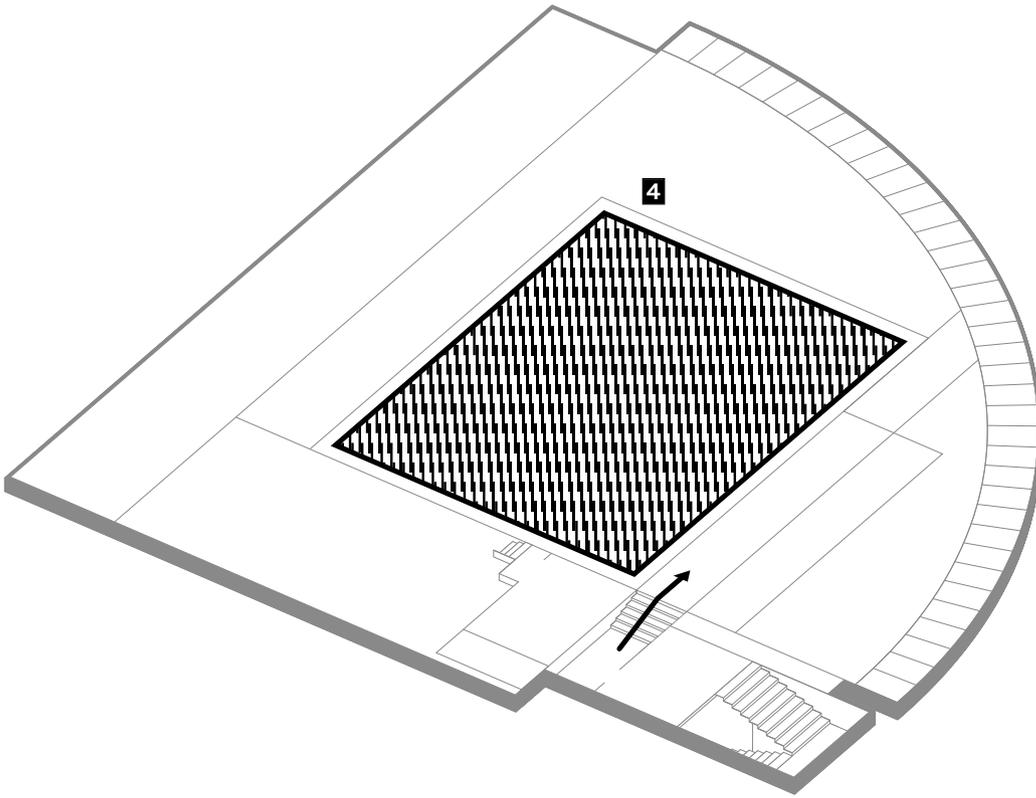
4

최고은

〈선베이크〉

2023, 동 파이프, 1700×1500cm

3층에서 엘리베이터 탑승 후 지하 1층으로 이동.



지하 1층에서 내린 다음 오른쪽 문을 열고 내부로 이동.  
분장실 진입.

**5-1** 현정윤

<필링 유 앤 필링 미>  
2023, 실리콘, 실리콘 안료, 플라스틱 선베드, 타월,  
56×195×55cm

분장실 건너편 문을 이용해 아트홀 백스테이지로 이동.  
\*백스테이지와 연결된 아트홀에서 작품이 상영 중이니  
관람 중 대화는 삼가주세요.

**5-2** 현정윤

<댄싱 스파이럴1>  
2023, 철 파이프, 레진, 실리콘, 실리콘 안료,  
135×240×40cm

**5-3** 현정윤

<댄싱 스파이럴2>  
2023, 철 파이프, 레진, 실리콘, 실리콘 안료,  
187×90×40cm

**5-4** 현정윤

<댄싱 스파이럴3>  
2023, 철 파이프, 레진, 실리콘, 실리콘 안료,  
80×240×80cm

엘리베이터 앞으로 되돌아간 뒤 반대편 복도를 따라  
아트홀 입구로 이동.

아트홀 안으로 입장.

**6-1** 그레이코드, 지인

<+3x10^8m/s, 빛의 속도를 넘어>와 <35부터  
20,000>을 겹친 약보  
2023, 연필 드로잉, 29.7×29.7cm

**6-2** 그레이코드, 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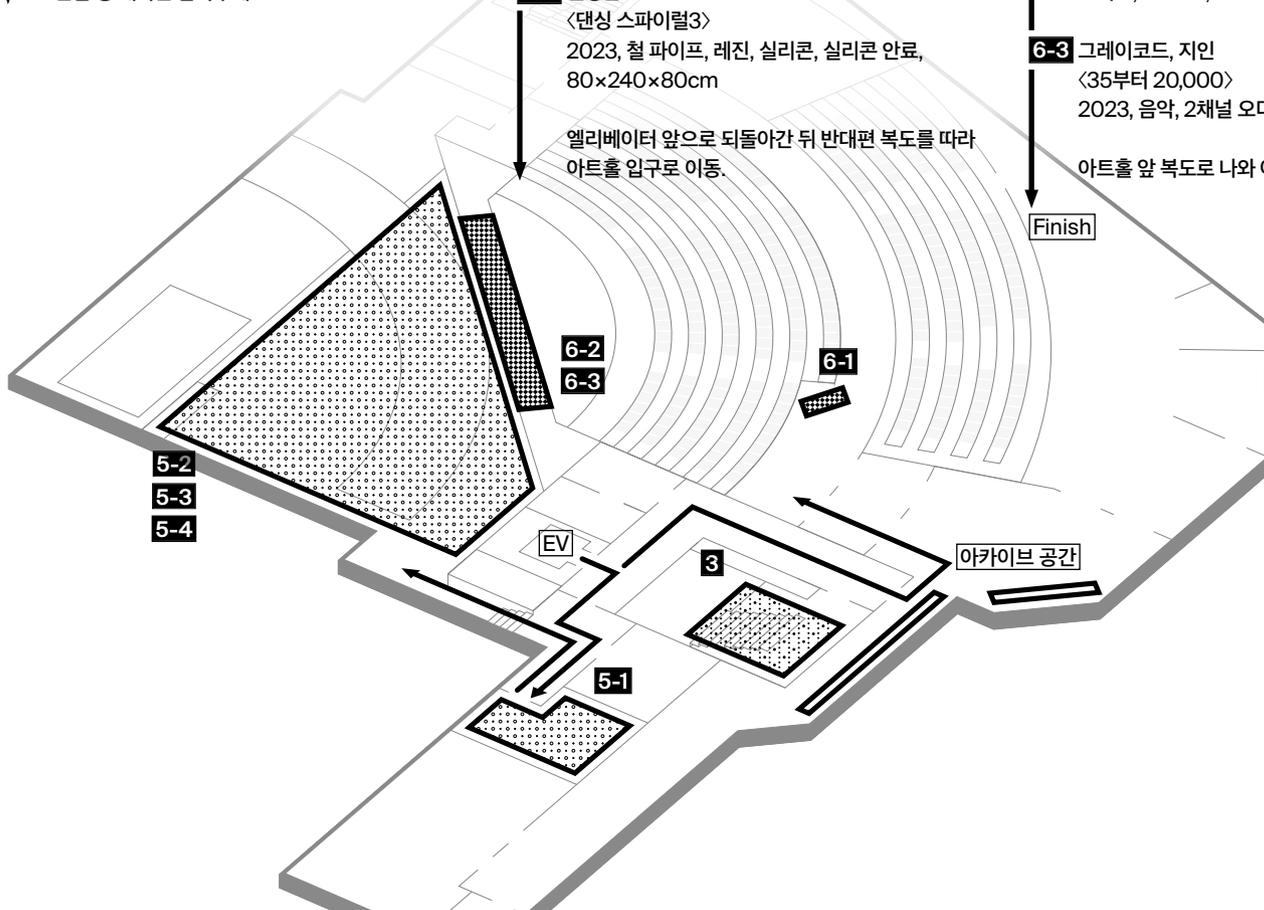
<+3x10^8m/s, 빛의 속도를 넘어>  
2017-2018, 오디오-비주얼 고정형 미디어, 2채널  
오디오, 48kHz, 24bit, 3770×800px, 465초

**6-3** 그레이코드, 지인

<35부터 20,000>  
2023, 음악, 2채널 오디오, 48kHz, 24bit, 491초

아트홀 앞 복도로 나와 아카이브 공간 열람.

Finish



5-2  
5-3  
5-4

6-2  
6-3

6-1

EV

3

아카이브 공간

5-1

**오피사이트**

2023. 8. 18. - 10. 8.

아트선재센터 내외부 공간

**참여 작가**

그레이코드 지인, 오종, 이요나, 최고은, 현남, 현정윤

**기획**

조희현(아트선재센터 전시팀장)

**진행 보조**

이에인(아트선재센터 큐레토리얼 어시스턴트)

**주최**

아트선재센터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예술경영지원센터

**관람 시간**

12:00-19: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 2023 아트선재센터

이 리플렛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아트선재센터**

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87

T. 02 733 8949

F. 02 733 8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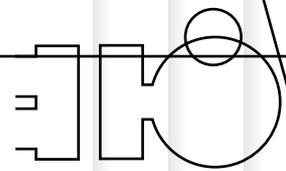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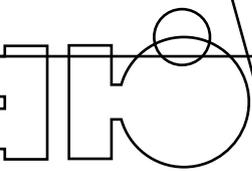
W. [www.artsonje.org](http://www.artsonje.org)

## 오프사이트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5년, 아트선재센터는 미술관 건물을 착공하기 전 기존 사이트의 공간적 의미를 전유하는 장소-특정적 전시인 《씩》을 열었다. 당시 전시에 참여한 열일곱 명의 작가들<sup>†</sup>은 장소를 구성하는 논리에 반응하는 작품을 제작했고, 이러한 시도는 작가-관객이라는 이분법적 대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소통과 다중적인 네트워크의 작동을 촉발했다. 이 전시는 한편으로는 글로벌리즘과 디지털화로 장소성의 의미를 잃어가는 동시대적 상황에 대한 반추이자, 압축적 근대화 속에서 장소를 통해 뒤틀린 시간을 찾고자 하는 동시대적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씩》에서 시작된 아트선재센터의 역사는 전시장이 아닌 공간, 특히 기능이 존재하는 공간에 조각적 작업을 소개한 다양한 ‘오프사이트(off-site)’ 전시들로 확장되어 왔고, 우리가 감각하고, 사고하고, 소통하는 모든 행위에 전제되는 시공간의 동시대적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했다.

2023년의 《오프사이트》는 비(非) 화이트큐브 공간을 매개로 한 조각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장소의 논리와 동시대적 조건에 반응하며 공간과 실재에 대한 감각을 재구축한다. 전시에 참여하는 그레이코드 지인, 오종, 이요나, 최고은, 현남, 현정윤은 극장, 백스테이지, 분장실, 정원, 계단, 기계실, 옥상 등 미술관의 기능적 공간을 전시 장소이자 재료로 삼고, 각자의 조형 언어와 조각적 실천을 미술관의 건물 안팎에서 실험하고 변주한다. 《씩》이 장소의 논리에 반응하며 주어진 공간 안의 복잡한 서사를 끄집어내고자 했다면, 《오프사이트》는 장소를 둘러싼 실재와 가상, 현상과 지각에 대한 동시대 작가들의 새로운 인식과 태도를 관찰하며 미술관 내부와 바깥 공간의 조각적 연결을 시도한다.

† 고낙범, 공성훈, 김우일, 김유선, 박모, 박소영, 박영숙, 안규철, 오형근, 육근병, 윤석남, 이동기, 이불, 최금화, 최선명, 최정화, 홍성민



현남은 고도화된 산업 저변의 피상적 성질을 물질화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동시대의 광범위한 세계를 조각의 언어로 축소해 재현한다. 광활한 자연의 풍경을 축소하는 동아시아적 개념인 '축경(縮景)'은 현남의 작업에서 중요한 방법론으로 작동한다. 풍경의 한 부분으로 놓이는 조각과 달리 축경은 수석이나 본재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풍경을 제시한다. 풍화와 침식 작용에 의해 마모된 작은 돌이 세상의 거대한 풍경을 축소해 담듯 현남은 현대적이고 산업적인 다양한 합성 재료가 가진 물성의 반응을 통해 동시대의 사회적 현상과 구조를 작은 사물에 압축한다.

오늘날 지상과 해저, 우주를 가로질러 연결된 네트워크는 금융 거래, 통신, 물류, 군사의 영역을 넘나들며 세계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국가 안보 문제나 국제 분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과 권력의 관계를 속이 뚫린 구멍들의 네트워크로 형상화한 현남의 <연환계>(2022)는 아트선재센터 1층과 3층 복도 끝, 두 개의 문을 열고 지나 마주하는 기계실에 설치된다. 평소 외부인의 접근이 통제된 이곳에는 몸집이 큰 기계들이 소음을 내며 작동하고 있고, 물질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건물의 배관들이 외부와 단절된 이곳에 모두 모였다 흠어들어진다. <연환계> 조각들은 별도의 추가 구조물 없이 기계실을 가로지르는 기존 배관과 덕트를 축으로 삼아 공중에 분산되어 매달려 있다. 「적벽대전」에서 방통이 조조 진영에 사술로 배를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조조의 군선에 불을 놓아 승리를 거둔 교묘한 계책을 작품 제목으로 사용했는데, 제목처럼 쇠사슬에 묶인 채 연결된 조각들은 위태로운 구조 안에서 기존 구조물에 기생해 공간을 점유한다. 이 조각들은 폴리스티렌에 굴을 파서 빈 부분에 예폭시를 붓고, 폴리스티렌을 다시 녹여 떨어져 나가게 한 뒤 마지막에 남은 부분을 조각의 몸체로 삼는 네거티브 캐스팅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현남은 전통적인 조각의 논리에서 벗어나 물질을 의도적으로 오·남용해 물질이 녹고, 과열되고, 부풀어 오르고, 부서지게 함으로써 조각의 물성을 극화하고 교란시킨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색으로 조색된 물질이 만들어내는 우연성의 흔적은 마치 지층의 퇴적 구조처럼 현남의 조각 표면에 커커이 쌓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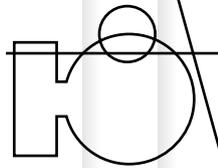
이요나는 여행과 이주, 디아스포라에 관심이 많다. 그는 공간의 경계,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경계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이요나의 조각은 새 등지처럼 일시적이고 유동적이다. 작가는 전시 기간 동안 관객이 실제 이용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능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관객이 작업의 일부가 되게 하고, 미술관의 규칙과 관습을 비틀어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한시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다.

아트선재센터 건물 옆 한옥의 내부정원에 설치된 <파운틴 인 트랜짓>(2023)은 스테인리스스틸 배관을 구부리고 부러뜨리고 용접해 만든 선형 구조가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것의 끝에는 도시

환경과 가정에서 발견되는 오브제들이 개연성 없이 결합되는데, 수영장 시계와 버스 손잡이, 가정집 샤워 시설을 동일한 위계에 놓으며 대중이 이용하는 공간과 개인 공간, 실내와 실외 등 서로 다른 공간 개념의 경계를 흐린다. 공간이 갖는 기능적 차원과 사회적 역할을 들여다보는 이요나는 아트선재센터 내부정원에 오래전부터 있던 돌로 만들어진 작은 낙수 연못에 <파운틴 인 트랜짓>을 설치했다.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이곳에 샤워 부스 트레이를 두어 다시 물이 고이게 하고, 그 물을 펴뿜해 샤워 수전으로 보내 다시 분수처럼 내뿜는다. 전통적인 조각의 역사에서 화이트큐브에 놓인 조각은 실용적인 기능이 부재한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이요나는 미술과 디자인, 건축의 영역을 상호 연결하며 기능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오히려 그것의 역기능을 강조한다. 공간 구조와 기능에 유쾌하게 반응하는 이요나의 작업은 작품과 공간, 관객을 경유하며, 스테인리스스틸 배관처럼 끊임없이 유동한다.

오종의 작업은 주어진 장소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는 건축 공간의 형태와 상황을 이해하고, 공간이 가진 진동과 울림을 감각하고, 공간에 흐르는 나지막한 공명을 감지한다. 가늘고 섬세하며 선적인 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오종의 조각은 언뜻 눈에 잘 띄지 않아 발견하기 어렵다. 선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공간에 실재하는 요소들과 교차하고, 순간의 빛과 공기들이 공간 사이로 흐를 때 비로소 오종의 작업이 보이고, 조각이 된다. 작가 노트에서 설명하듯, 그의 조각은 변화에 유연하며 매 순간 존재의 이유와 근거를 스스로 생성하고 다시 함께 소멸한다.

이번 전시에서 오종은 아트선재센터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층계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그는 매 순간 달라지는 공기의 온도와 질감, 빛의 방향 그리고 매질(媒質)을 타고 확장되는 진동을 예민하게 살핀 후 공간의 본래 질서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놓일 수 있는 조각의 위치와 그 형태를 결정한다. 가느다란 LED 아크릴 튜브로 구성된 일곱 개의 조각 <룸 드로잉(라이트) #2>(2023)는 계단 구조물에 높이 매달려 기존의 미술관 조명의 기능을 대체하여 설치되었다. 조각의 형태는 통창 너머 보이는 기와 지붕의 곡률, 나뭇가지에 매달린 잎, 주변 건물의 조형적 특징과 닮아 있기도 하고, 미술관 건물의 내부 구조와 동선에 따른 관객의 신체 움직임에 참조하기도 한다. 층계 곳곳에 흠뻑 설치된 이 선형적인 조각은 감상하는 위치에 따라 조각이 홀로 보이기도 하고, 여러 조각이 모여 풍경을 이루다 이내 사라지기도 한다. 층계를 오르며 달라지는 시선의 높낮이가 조각에 모종의 음과 리듬을 부여하고, 조각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비친 허상과 그 너머의 바깥 풍경이 빚어내는 이미지의 중첩은 실재하는 조각의 감각을 증폭시킨다. 그렇게 오종의 작업은 공기와 빛의 파동을 타고 이미 존재하는 공간과 조우한다.



**최고은** | 옥상정원

최고은은 산업화된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가전이나 규격화된 산업 자재를 조각의 재료로 삼고, 조각의 몸체로서 산업재가 가진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핀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와 조건을 낫설게 해체하거나 재구축함으로써 그것이 지시하는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는 지우고, 물질로서 조각이 되게 한다.

아트선재센터의 옥상정원으로 나온 최고은의 동 파이프 조각은 마치 무더운 여름날 일광욕을 즐기듯 나른한 상태로 하늘과 마주한다. 유체를 이송하는 산업용 배관은 주로 지하나 건물 내에 매립해 가끔적 눈에 띄지 않고 최소한의 공간만 점유하도록 설계된다. 미술관의 전면에 드러나는 공간인 전시장을 뒤로하고, 부수적이거나 가려진 장소 혹은 쓰임새가 다른 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이번 전시처럼, 최고은은 건축의 통상적 논리를 뒤집어 건물 내부에 갇혀 있던 파이프를 꺼내어 외부로 향하게 한다. 이 때 사분 원기둥인 아트선재센터 건물은 조각을 위한 지지체로 기능을 전환하고, 최고은의 조각은 건물이라는 좌대의 상부 표면인 옥상정원 바닥 위에 올려진다. 뱀의 움직임처럼 구부러져 지나가는 <뱀에이크>(2023)는 견고해 보이는 바닥면을 들어올려 구축한 빛면 사이로 모습을 감추었다 다시 근육을 늘려 지면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를 들고 방향을 틀어 회전하기도 한다. 반으로 잘리고 구부러진 배관들은 뱀의 뼈대와 근육이 가진 탄성과 유연성을 보여주듯 옥상 위를 유영하며 곡선 운동을 전개한다. 본래 직선의 운동성을 가진 배관이 획듯한 곡률 값은 방향의 전환이나 형태적 뒤틀림, 반동, 힘의 대치를 상기시키며 차완한 긴장을 발산한다. 이렇듯 옥상정원 위의 동 파이프는 공간의 조건에 기대어 스케일을 변주하고, 그 형태와 기능을 새로운 감각으로 드러내며 조각의 형질로 전환한다.

**현정윤** | B1 분장실, B1 백스테이지

눈이 녹아 처마 아래로 떨어지다 그대로 얼어버린 고드름처럼 현정윤의 조각은 순간의 운동성과 힘을 응축한 채 멈추어 있다. 그는 기형적인 신체를 닮은 조각에 모종의 태도와 성격을 부여하고, 조각을 둘러싼 조건과 서사를 설정해 조각 스스로 발화하는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에 정지해버린 조각들은 모호한 형태와 물성의 전복을 통해 관객들이 형태 안팎에 존재하는 상황을 상상하고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예견하게 한다.

아트선재센터 아트홀의 백스테이지와 분장실에 놓인 현정윤의 조각들은 마치 연극이 시작되기 전 배우들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자세를 취하며 바닥을 딛고 서 있다. 현정윤은 주로 어딘가 뻐뚱어지고 균형이 어긋난 도시의 풍경을 참조해 물질을 의인화하는데, 서로 다른 물성의 재료가 응집해 만들어내는 기이하고 과장된 몸체를 통해 조각적 감각을 드러낸다. 종과 성별을 가능할 수 없는 혼성 조각 <댄싱 스파이럴1>(2023), <댄싱 스파이럴2>(2023), <댄싱 스파이럴3>(2023)은 차갑고 딱딱한 철 파이프 위로 분홍색의 실리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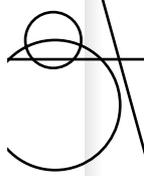
레진이 살점처럼 붙고, 관능적인 모습으로 꼬여 있다.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 뼈대를 타고 계속해서 증식하는 조각의 살점은 축축한 점액질로 뒤덮여 아직도 몸체가 생장 중임을 암시한다. 이 분화하는 살덩어리가 발산하는 생성적인 힘은 단단한 파이프가 가진 직선의 힘을 역전해 조각의 몸체를 유연하게 뒤틀고, 서로의 힘의 구조 안에서 대치하던 두 물질은 마침내 동등한 힘으로 곡선의 움직임을 함께 형성하며 물성을 유화한다. 의도적으로 힘의 관계를 모호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현정윤의 조각은 그것이 연상시키는 비가시적 상황으로 관객을 유인하고, 모종의 조각적 시공간을 상상하게 하며, 보이지 않는 힘의 구조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한다.

**그레이코드, 지인** | B1 아트홀

그레이코드, 지인은 매질을 타고 흔들리는 진동, 가시광선의 파장, 선형적인 시간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비가시적 현상을 전자음악을 매개로 탐구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지닌 비물질적 속성의 실재를 감각하게 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실험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정형 미디어 작업 <+3x10<sup>8</sup>m/s, 빛의 속도를 넘어>(2017-2018)를 2채널 오디오 작업 <35부터 20,000>(2023)과 더불어 새롭게 새로운 구성으로 선보인다.

진공상태에서 빛이 가지는 속도인 ‘+3x10<sup>8</sup>m/s’은 우주의 모든 에너지와 물질이 가질 수 있는 속도의 최댓값이다. 그레이코드, 지인의 <+3x10<sup>8</sup>m/s, 빛의 속도를 넘어>는 현존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빛의 속도 그 너머에 존재할 우주적 현상을 상상하고, 매질을 타고 출력되는 비가시적 파장이 신체에 닿으며 확장되는 다층적 감각을 탐사한다. 아트선재센터 아트홀에 장착된 스피커의 출력 가능한 주파수 범위를 제목으로 가져온 <35부터 20,000>은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특정 헤르츠의 노이즈를 재료 삼아 만든 음악이다. 이 작업은 공간이 가진 물리적 환경을 수용하고 또 그것에 반응하며 <+3x10<sup>8</sup>m/s, 빛의 속도를 넘어>의 기존 사운드 위로 포개진다. 이때 서로 다른 두 주파수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빚어내는 소리의 진동과 음압은 체성 감각으로 이전되어 소리의 현상을 실재화하고, 영상 속 푸른 점들이 촘촘히 모여 이루는 추상의 이미지는 우주의 별처럼 일렁이며 푸른 빛의 파동을 시각화한다.

한편 객석 복도에 걸려 있는 드로잉은 더블링된 두 작업의 개별 악보와 얽힌 시간에 대한 드로잉을 여러 레이어로 겹친 것이다. 그레이코드, 지인에게 악보는 신체에 관한 것이자 태도와 형식에 관한 기록이다. 통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는 음계를 교차하는 입체 구조 안에 위치시키고, 음악적 이완과 수축이 신체와 맺는 상호작용을 악보에 드러내면서 작품은 현재를 기록하는 새로운 시간성과 동시성을 제안한다. 이처럼 그레이코드, 지인은 선형적인 시간의 통상적 개념에서 벗어나 물질과 비물질 사이에 있는 감각의 경계 안에 새로운 시공간을 구축하고, 그것이 전유하는 비가시적 요소의 실재를 더욱 공고히 한다.



## 작가 소개

### 그레이코드, 지인(b. 1984, b. 1988)

그레이코드, 지인은 개별 전자음악가이자 아티스트 그룹이다. 공기의 진동과 음압 또는 음악적 긴장과 이완을 작품의 언어로 활용해 소리라는 비가시적 현상에서 실재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 작품을 만든다. 2021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이후 발간된 『Data Composition』이 '2021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되었다. 백남준아트센터(2022),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투비아(2020), 주독일한국문화원(2019), 체코 런치미트 페스티벌(2018) 등에서 전시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8년 독일 ZKM(예술과매체기술센터)에서 '기가-헤르츠 어워드' 작품상을 수상했다.

### 오종(b. 1981)

오종은 실, 나무 막대, 쇠막대, 낚시줄, 연필선, 얇은 조명 등 단순하고 선적인 재료와 중력, 빛, 그림자를 이용해 공간에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건축적인 구조물을 설치한다. 공간은 작품의 크기, 모양, 한계를 결정하고, 작품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조심스럽게 구축된다. 주요 개인전으로 《낮은음으로부터》(원앤제이 갤러리, 2022), 《서로 선 면》(씨알 콜렉티브, 2022), 《호 위에 선》(두산갤러리, 2021), 《주고받는 모서리-오종의 공간프로젝트》(서울시립미술관, 2018) 등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 《사이의 리듬들》(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2023), 《토끼 방향 오브젝트》(덕수궁, 2020), 《송은미술대상전》(송은아트스페이스, 2020), 《기하학, 단순함 너머》(뮤지엄 산, 2019), 《포인트 카운터 포인트》(아트선재센터, 2018) 등이 있다.

### 이요나(b. 1986)

이요나는 도시 및 실내 공간의 일상적인 재료와 스테인리스스틸 배관의 구조를 결합한 조각을 만든다. 이러한 작가의 작업은 테이블 위의 오브제부터 빌딩 전체와 건축 내부를 점유하는 설치를 아우른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미술관(2022), 더니든공공미술관(2020), 웰링턴시립미술관(2018-2019),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미술관(2018-2019)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이외에도 부산비엔날레(2020), 리옹비엔날레(2019), 창원조각비엔날레(2016)에 소개된 바 있다.

### 최고은(b. 1985)

최고은은 평소에 유심히 경험했던 사물들을 익숙하지 않은 재료로 다루면서, 그 과정이 조각을 무릅쓸 수 있을지 고심한다. 주로 건물에 내장돼 있던 파이프를 조각적인 라인으로 구부리거나 절개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물만은 아니고 어느새 조각이거나 그것을 유비하기 위한 동사가 된다. 2016년 첫 개인전 《토르스》(김종영미술관)를 열었다. 《코너링》(아마도예술공간, 2022), 《비비드 컷츠》(P21, 2021), 《오렌지 포디움》(시청각, 2018)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하며 서울 미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 현남(b. 1990)

현남은 거대한 풍경을 작은 사물에 축소하는 '축경'의 방법론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세계를 압축하는 작업을 한다. 이 과정은 다양한 현대적, 산업적 재료의 물성을 극한으로 이끌고, 당대의 사회적 현상과 구조를 조각적 기법으로 번역하며 이루어진다. 《무지개의 밑동에 굴을 파다》(아틀리에 에르메스, 2021), 《역시 내 장년 성기순례기는 잘못됐다》(인스틴트루프, 2021), 《축경론》(공간형&쉬프트, 2020)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22 부산비엔날레, 《구름산책자》(리움미술관, 2022), 《OPENING CEREMONY》(YPC Space, 2022), 《3X3》(시청각, 2018)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 현정윤(b. 1990)

현정윤은 공간에 쓰인, 보이지 않는 힘의 관계 안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존재들의 양태를 참조해 작업으로 만든다. 작가는 조각에 모종의 태도를 부여하거나 조각의 물성을 통해 신체의 의지를 드러낸다. 조각의 시선과 역할을 설정하며 정해진 위치에 따라 조각이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을 즐기며, 이렇게 제시된 조각의 상태를 통해 조각에 있었을 법한 일과 조각이 할 수 있는 일을 관객이 상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인전으로 《See you down the road》(땃토리2, 2021), 《울며 수영하기》(송은아트큐브, 2020), 《You Again》(OS, 2019) 등이 있으며 《SUMMER LOVE 2022》(송은, 2022), 《젊은모색 2021》(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21) 등 다수의 단체전과 금천예술공장(2022),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2021) 등의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 전시 연계 프로그램

### 참여 작가들과 함께하는 대화

#### 일시

이요나, 현정윤  
2023. 8. 30. (수) 16:00

#### 그레이코드, 지인

2023. 9. 14. (목) 16:00

#### 오종, 최고은, 현남

2023. 9. 21. (목) 16:00

#### 장소

아트선재센터 더그라운드-L

\*모더레이터는 추후 공지됩니다.

#### 도슨트 프로그램

#### 일시

2023. 9. 1. - 9. 10.

한국어 14:00, 16:00

영어 17:00

#### 소요시간

50분

#### 신청방법

사전 신청(웹사이트 참고) 및 현장 접수

#### 비용

무료

